

##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김혜원 이지연†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고생 35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지고, 자기 위로 능력이 낮으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클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았으며,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적게 나타났다. 둘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도 미치지만, 자기 위로 능력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매개로도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 매개효과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6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지연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Tel: (032)835-8160/ E-mail: [becoming@inu.ac.kr](mailto:becoming@inu.ac.kr)

Lasch(1978)와 Rinsley(1982)는 우리 모두가 아이의 응석을 지나치게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소홀히 하는 양육방식 때문에 자기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시사했다(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2007에서 재인용).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과 같은 신조어도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적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서경현, 양승혜, 2010). 더욱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광고하고 능력을 과시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은 자기개발의 자극제가 된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는 해롭다(Hotchkiss, 2003). 일반적으로 자기애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거대한 자기표상, 칭찬과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자기중심성, 오만한 태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과민성 등이 있고, 이는 DSM-V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들이다(권석만, 2014).

그런데 현대의 여러 이론가들은 ‘병리적인 웅대성’과 ‘취약한 자존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양식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구분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임을 언급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김진희, 2011;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이준득, 2005; 윤성민, 신희천, 2007; 한혜림, 2004; Rose, 2002). 즉, 외현적 자기애는 방어적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으나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Rose, 2002).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겉으로 볼 때는 자기애적인 잘난 척과 거만함 등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깊은 자기애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또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하여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수치심과 굴욕감을 쉽게 느끼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정남운,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자기애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고(Kohut, 1977), 자기애의 발달이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Bleiberg, 1994)라는 주장에 기반하여, 성인기 성격으로 더욱 굳어지기 전 단계인 청소년 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사회불안의 발병 시기가 10대 후반에 가장 많고(오강섭, 여인중, 이시형, 1994; 이국화, 하은혜, 2009),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에 기반하여 청소년 시기 가운데 우선적으로 여고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성(윤언정, 2009; 이세연, 2007), 불안(강예모, 김정규, 2012), 수치심(조민혜, 이은진, 이지연, 2014; 최두환, 2013), 분

노(김혜경, 2010; 최지영, 2013), 우울(원주식, 2006; 이상미, 2009)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억제적이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를 더 역기능적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준득, 2005; Hart & Joubert, 1996).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경험하고,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위험 상황에서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좁힌다는 문제를 지닌다. 즉, 분노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통 자기 초점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서 더 헤어내기 어렵게 된다(권석만, 2008).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자기애는 적대감과 분노감을 많이 느껴 신체적·심리적 질환에 더욱 취약하고, 일상 생활에서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백승혜, 현명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내현적 자기애는 일시적인 증상이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권은미 외, 2009). 따라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선미, 서경현, 2015; 정승아, 오경자, 2005). 상담에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났을 때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데(Culp & Beach, 1993; 최미례, 이인혜, 2003에서 재인용), 그것은 매개효과가 나타난 영역에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 매개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emotional distress tolerance: EDT)에 주목하였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정서적 및 신체적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 이 고통을 기꺼이 경험하고 견딜 수 있는 개인의 능력(Brown, Ljuej, Kahler, & Strong, 2002) 및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감내해내는 정도를 나타내는데(Clen, Mennin, & Fresco, 2011), 최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담 현장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McHugh et al., 2011; Zvolensky, Berstein, & Vujanovic, 2011). 사실상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기에 이러한 불변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이 더욱 커지고,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정신건강의 핵심목표이기도 하고(Linehan, 1993), 치료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정지현, 201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oodman과 Leff(2011)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지닌 경우, 정서적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다 잘 견뎌내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적 초점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장하연과 조용래(2012)도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이 클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가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기라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임혜령(2015)은 이러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으면 분노를 경험할 때에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하여 분노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역기능적 분노반응을 강화하거나 지속시킨다고 하였다. 이외의 다른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가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임혜령, 2015; Anestis, Selby, Fink, & Joiner, 2007; Gaher, Hofman, Simons, & Hunsaker, 2013; Kraemer, Luberto, & McLeish, 2013; Simons & Gaher, 2005; Vujanovic et al., 2013; Vujanovic, Marshall-Berenz, & Zvolensky, 20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록 내현적 자기에,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를 한꺼번에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내현적 자기에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자기 위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 위로 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이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oser, 1991). 즉,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Glassman, 1989; 권영,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기 위로 능력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 태도의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Kohut, 1971), 양육자의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실패로 인해 내현적 자기에를 보이는 경우(Kernberg, 1975; Ryckman, 2012), 자기 위로 능력이 빈약할 수 있다. 또한 자기에적 성격장애 등 치료적 예후가 좋지 않은 비교적 심각한 성격장애 전반에 자기 위로 능력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권영,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공세영, 2014) 및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박효서, 1999)를 통해서도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 경우,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에, 정서적 고통 감내력 및 자기 위로 능력이 부정적 정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에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치료적 초점이 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 각각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사실상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 위로 능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응적 능력(Moser, 1991)인데,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회피적 대처방식이나 형편없는 정서조절을 보인다고 하였다(안계훈, 2014; Brandt, Zvolensky, & Bonn-Miller, 2013; Iverson, Follette, Pistorello, & Fruzzetti, 2012; Mullance, 2011; O'Leirigh, Ironson, Smits, 2007; Simons & Gaher, 2005).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도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고(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osahl, 1996),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박우리, 2016). 공세영(2014)도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을 경험회피가 매개한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림 2]의 경쟁모형 1에서는 두 매개변인 간 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중매개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의] 경쟁모형 2와 [그림 4]의 경쟁모형 3은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이르는 직접 경로만을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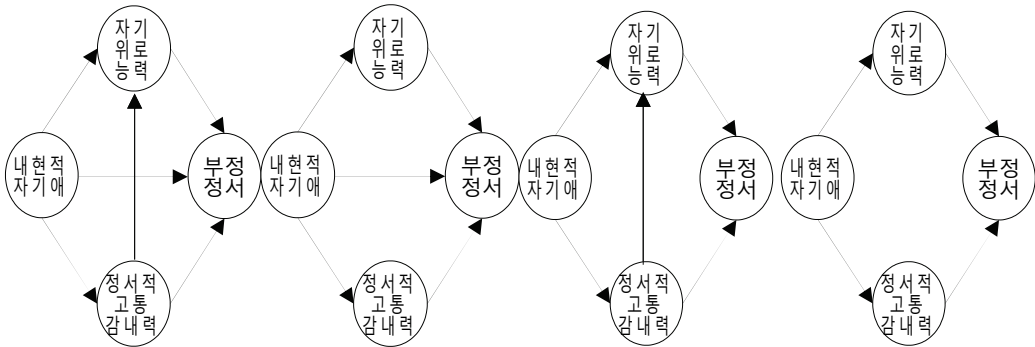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매개하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자기 위로 능력이 매개하는가?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이중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그림 4] 경쟁모형3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 수원, 일산 등 수도권 소재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 여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5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1학년은 113명(31.7%), 2학년은 243명(68.3%)을 차지하였다.

### 측정도구

#### 내현적 자기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는 목표불안정(9문항, 예: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과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예: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과민/취약성(10문항, 예: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 정서적 고통 감내력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emotional distress tolerance: EDT) 척도를 박성아(2010)가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박성아가 타당화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 척도는 조절(3문항, 예: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감내력과 몰두(5문항, 예: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 평가(7문항, 예: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보다 잘 견뎌내는 것 같다)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고통 감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자기 위로 능력

자기 위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lassman(1988)에 의해 개발된 자기 위로 능력 척도(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를 전희정(1999)이 번안하고, 고소희(2000)가 수정·보완한 척도 가운데 스스로 위로하기(예: 기분이 나쁠 때, 때때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 위로 능력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김미진, 민선희, 이지연(2010)의 연구에서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의 부정적 정서 척도와 안신호, 이승혜 및 권오식(1993)의 한국어 정서 단어 연구를 이용하여 이선미(2011)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한국판 부정적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 척도는 분노, 권태, 놀라움, 수치, 고독, 애태움, 연민, 공포, 허무, 상심 등 10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요인 당 3개씩 3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이선미(2011)의 연구에서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5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

석했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내현적 자기애 2문항, 정서적 고통 감내력 1문항, 자기 위로 능력 5문항, 부정적 정서 1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그런 후,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정적 정서는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각각 3개, 4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chi^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그 뒤,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사이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356)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 과

###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2, 첨도<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9~1.97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 >10(송병호, 최규정, 2000)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 $r=.63$ ) 및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적 고통 감내력( $r=-.62$ )이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r=.58$ ) 및 내현적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 $r=-.58$ ),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정적 정서( $r=-.53$ ) 및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 $r=-.52$ )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5개의 측정변수들이 여고생들의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84, N=356)=255.69$ ,  $r<.001$ , CFI=.95, TLI=.94, RMSEA=.076(90% 신뢰구간 .065~.087).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52~.97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내현적 자기애는 .52~.97, 자기 위로 능력은 .77~.85,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60~.91, 부정적 정서는 .87~.92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N=3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목표불안정	1														
2. 인정욕구	.20**	1													
3. 착취	.21**	.53**	1												
4. 괴민	.51**	.61**	.55**	1											
5. 소심	.48**	.37**	.36**	.68**	1										
6. 조절	-.17**	-.32**	-.27**	-.36**	-.27**	1									
7. 감내력	-.28**	-.40**	-.37**	-.62**	-.43**	.48**	1								
8. 평가	-.35**	-.44**	-.38**	-.63**	-.50*	.57**	.76**	1							
9. 자기위로1	-.19**	-.37**	-.34**	-.54**	-.34**	.36**	.55**	.57**	1						
10. 자기위로2	-.34**	-.33**	-.36**	-.61**	-.42**	.28**	.51**	.50**	.64**	1					
11. 자기위로3	-.34**	-.26**	-.30**	-.53**	-.37**	.29**	.50**	.52**	.62**	.71**	1				
12. 부정정서1	.35**	.38**	.39**	.62**	.46**	-.32**	-.46**	-.48**	-.43**	-.46**	-.43**	1			
13. 부정정서2	.31**	.34**	.38**	.57**	.42**	-.35**	-.46**	-.44**	-.37**	-.50**	-.43**	.86**	1		
14. 부정정서3	.27**	.38**	.39**	.49**	.28**	-.31**	-.45**	-.40**	-.35**	-.45**	-.41**	.79**	.80**	1	
15. 부정정서4	.33**	.38**	.36**	.59**	.40**	-.27**	-.45**	-.46**	-.40**	-.49**	-.45**	.83**	.83**	.82**	1
평균	2.95	3.06	2.24	2.79	2.85	3.48	3.39	3.45	3.22	3.08	2.98	2.49	2.42	2.60	2.54
표준편차	0.83	0.71	0.65	0.76	0.72	0.77	0.93	0.76	1.10	1.02	0.96	0.80	0.81	0.89	0.83
왜도	-.01	.07	.41	.12	.07	-.02	-.34	-.27	-.24	-.00	-.00	.21	.18	.20	.36
첨도	-.32	-.20	.32	-.41	-.28	-.21	-.47	-.18	-.71	-.51	-.42	-.49	-.66	-.49	-.14

\* p<.05, \*\* p<.01

가능한 점수 범위: 내원적자기애(1~5), 정서적고통감내력(1~5), 자기위로능력(1~5), 부정정서(1~5)

## 구조모형의 검증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를 예언변수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을 매개변수로,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chi^2(df=84, N=356)=255.69$ ,  $p<.001$ , CFI=.95, TLI=.94, RMSEA=.076(90% 신뢰구간 .065~.087). 경쟁모형들도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좋은 경쟁모형2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의 차이값은 30.75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더 복잡한 모형인 연구모형을 [그림 5]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55.69	84	.94	.95	.076(.065~0.087)
경쟁모형1	287.46	85	.93	.95	.082(.071~0.092)
경쟁모형2	286.44	85	.93	.95	.082(.072~0.092)
경쟁모형3	313.47	86	.93	.94	.086(.076~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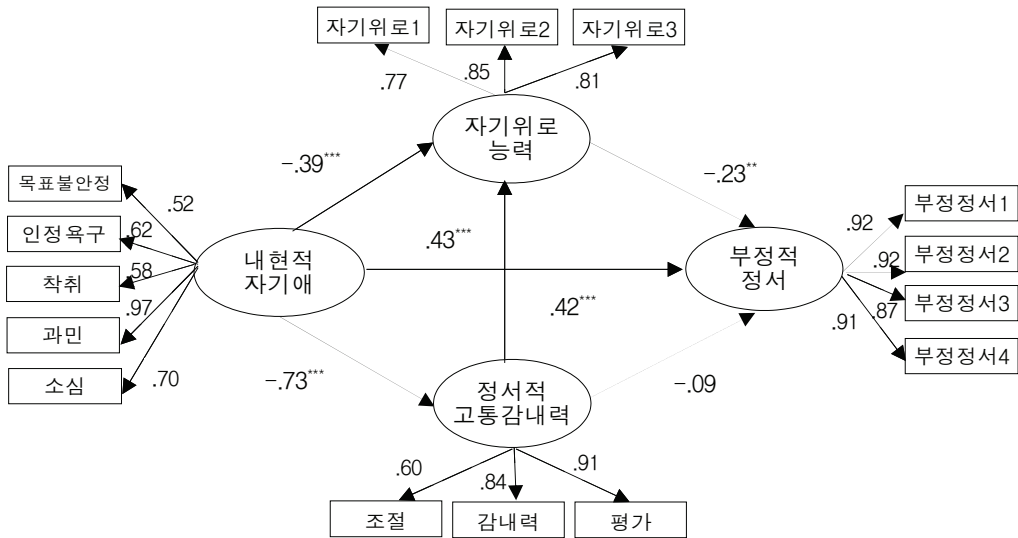
##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5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정서적 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ta=-.73$ ). 다음으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자기 위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 $\beta=.43$ ),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beta=.42$ ),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위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 $\beta=-.39$ ) 및 자기 위로 능력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beta=-.23$ )이 모두 유의하였다.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N=356)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0.26	-0.73	0.03	-7.69***
내현적자기애 → 부정적정서	0.56	0.42	0.11	5.04***
내현적자기애 → 자기위로능력	-0.17	-0.39	0.04	-4.97***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0.52	0.43	0.10	5.32***
자기위로능력 → 부정적정서	-0.70	-0.23	0.24	-2.89**
정서적고통감내력 → 부정적정서	-0.34	-0.09	0.30	-1.14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5] 최종모형

###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12, 95% Bias-corrected CI=[.041, .245]로 유의하였고, 내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현적 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136, 95% Bias-corrected CI=[-.211, -.08]로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94, 95% Bias-corrected CI=[.035, .196]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364, 95% Bias-corrected CI=[-.722, -.137]로 유의하였다.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N=356)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현적자기애	→	자기위로능력	→ 부정적정서	0.12* (.041 ~ .245)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0.136* (-.211 ~ -.08)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 부정적정서	0.094* (.035 ~ .196)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 부정적정서	-0.364* (-.722 ~ -.137)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고생들의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치료적 초점이 될 수 있는 개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지고, 자기 위로 능력이 낮으며,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지닌 경우에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Goodman과 Leff(2011)의 연구와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대표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요구 신념이 과도하게 클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한 장하연과 조용래(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공세영, 2014), 자기 위로 능력 증진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며(권영, 2014), 자기 위로 능력이 부모의 공감적

양육태도를 내면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공감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Kohut(1971)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공격성, 불안, 분노, 수치심,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강예모, 김정규, 2012; 이준득, 2005; 조민혜 외, 2014; Hart & Joubert, 1996).

다음으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식 등의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고(박우리, 2016; 안계훈, 2014; Brandt et al., 2013; Hayes et al., 1996; Iverson et al., 2012; Linehan, 1993; McHugh, Reynolds, Leyro, & Otto, 2013; McHugh et al., 2014; Mullance, 2011; O'Cleirigh et al., 2007; Otto, Safren, & Pollack, 2004; Simons & Gaher, 2005), 경험회피를 많이 할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안계훈, 2014) 및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연구(공세영, 2014)와 흐름을 같이 한다. 비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한 종합적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자기 위로 능력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질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박효서(1999) 및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보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높게 경험한다는 Gross와 John(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자기 위로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단일 변인으로도 부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 위로 능력이 매개한다는 의미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위로 능력을 통하여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발생적 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위로 능력이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위로 능력을 상담 현장에서 잘 활용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고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 혹은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최정인(200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며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셋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았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도 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이중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부정적 정서의 정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불안 경험 그 자체보다 불안 경험을 감내해내는 능력의 부족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힌 유성진(2010)의 연구와 낮은 고통 감내력이 회피적 대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회피적 대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치료적 요소임을 시사한 선행 연구(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와 부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걱정을 경험회피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안계훈(2014)의 연구결과 및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을 경험회피가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공세영(201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사실상 내현적 자기애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권은미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이 변인들이 중요한 치료적 중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러 이론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양육자의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실패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고(Kernberg, 1975; Ryckman, 2012),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일수록 무가치함, 실망, 좌절과 같은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감정에 직면하여 이를 버텨내는 능력이 떨어지며, 주로 이들은 부인, 억압, 회피 등의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최승미, 2012; 최혜정, 장문선, 2010). 이러한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은 자기 위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공세영, 2014),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감정이나 생각을 해결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더 떠안게 되는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상담에서 치료적 개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여고생을 상담할 경우, 상담자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피적 조절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무엇보다 공감적 태도를 지니고(Kohut, 1971), 이들이 경험적 상황 속에서 느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읽어주며, 때로 부드러운 직면(Kernberg, 1975)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어야 그러한 감정을 더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고(김은영, 2009),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공세영, 2014), 무엇보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향상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녔더라도 이들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치료 예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의의 외에도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만 기술되고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애, 자기 위로 능력,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실제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여고생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연구대상에서 3학년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여고생 전체 혹은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를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여고생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고도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정도와 고통에 대한 감내력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고통 감내력을 측정할 경우, 이 둘을 정확하게 변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Oser, Trafton, Lejuez, & Bonn-Miller, 2013).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에는 개념적 순환이 있을 수 있다. 즉,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려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 경우,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부정적 수단(예: 약물 사용, 폭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특정한 정신 병리(예: 여자 청소년의 폭식) 변인까지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켜 연구 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매개 혹은 이중매개 변인으로 밝혀진 자기 위로 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출, 수용, 마음챙김, 주의 분산 등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효과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 위로 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적 중재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여고생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정적 정서를 호소하는 여고생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예모, 김정규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지, 12(3), 331-348.
- 고소희 (2000). 성인애착유형이 자기위로능력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세영 (2014). 남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4).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권영 (2014).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분노행동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미진, 민선희, 이지연 (2010).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2), 13-22.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은영 (2009).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진희 (2011). 청소년의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 및 자기개념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감내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우리 (2016). 부정 정서조급성과 고통 감내력이 섭식통제 상실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서 (1999).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경현, 양승혜 (2010).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53-671.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병호, 최규정 (2000). 다중공선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소논문지, 2(1), 61-93.
- 안계훈 (2014).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강섭, 여인중, 이시형 (1994). 발병연령에 따른 사회공포증의 임상고찰. 신경정신의학회, 33(5), 953-959.
- 유성진 (2010). 불안증상의 발현에서 위험회피 기질과 체험회피 시도의 역할: 불안감내력 장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애의 개념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윤언정 (2009).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청소년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국화, 하은혜 (2009).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1-18.
- 이상미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11).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신체감각 증폭 지각 및 신체적 귀인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연 (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임혜령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하연, 조용래 (201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2(3), 299-313.
- 전희정 (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지현 (2015). 고통 감내력과 정신건강의 관계: 주관적·행동적 고통 감내력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혜, 이은진, 이지연 (2014). 초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소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5(3), 203-221.
- 최두환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승미 (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분노표현양식, 방어기제유형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인 (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에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한혜림 (2004).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estis, M. D., Selby, E. A., Fink, E., & Joiner, T. E. (2007). The multifaceted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dysregulated eating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 718-72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leiberg, M. D.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Brandt, C. P., Zvolensky, M. J., & Bonn-Miller, M. O. (2013). Distress tolerance, emotion dysregulation, and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HIV+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3), 446-455.
- Brown, R. A., Lejuez, C. W., Kahler, C. W., & Strong, D. R. (2002). Distress tolerance and duration of past smoking cessation attemp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448-456.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 Clen, S. L., Mennin, D. S., & Fresco, D. M. (2011).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M. J. Zvolensky, A. Bernstein, & A. A. Vujanovic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aher, R., Hofman, N., Simons, J., & Hunsaker, R. (2013).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s

- mediators between trauma exposure and borderlin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3), 466-475.
- Glassman, E. J. (1988).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9-B), 421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man, C. L., & Leff, B. (2011). *The everything guide to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rofessional, reassuring advice for coping with the disorder - at work, at home, and in your family*. www.adamsmedia.com: Adams Media.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rt, P. H.,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1168.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otchkiss, S. (2003). *Why is it always about you?: The seven deadly sins of narcissism*. FreePress. (이세진 역.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 Iverson, K. M., Follette, V. M., Pistorello, J., & Fruzzetti, A. E. (2012). An investigation of experiential avoidance, emotion dysregulation, and distress tolerance in young adult out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4), 415-422.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aemer, K. M., Luberto, C. M., & McLeish, A. C. (2013). The moderating role of distress

- tolera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physical concerns and panic and PTSD-related re-experiencing symptoms. *Anxiety, stress, and coping*, 26, 330-342.
- Leyro, T. M., Zvolensky, M. J., & Bernstein,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mong adults. *Psychological Bulletin*, 136, 576-600.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 McHugh, R. K., Daughters, S. B., Lejuez, C. W., Murray, H. W., Hearon, B. A., Gorka, S. M., & Otto, M. W. (2011). Shared variance among self-report and behavioral measures of distress intolera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3), 266-275.
- McHugh, R. K., Kertz, S. J., Weiss, R. B., Baskin-Sommers, A. R., Hearon, B. A., & Bjorgvinsson, T. (2014). Changes in distress intolerance and treatment outcome in a Partial Hospital Setting. *Behavior Therapy*, 45(2), 232-240.
- McHugh, R. K., Reynolds, E. K., Leyro, T. M., & Otto, M. W. (2013). An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of distress intolerance and emotion regulation with avoida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2), 363-367.
-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Mullane, C. N. (2011). *Distress tolerance, experiential avoidance, and negative affec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ating behavior and BMI*.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O'Cleirigh, C., Ironson, G., & Smits, J. A. (2007). Does distress tolerance moderate the impact of major life events on psychosocial variables and behaviors important in the management of HIV?. *Behavior therapy*, 38(3), 314-323.
- Oser, M. L., Trafton, J. A., Lejuez, C. W., & Bonn-Miller, M. O. (2013).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and objective measurement of distress tolerance in relation to antiretroviral treatment adherence and response among HIV-positive individuals. *Behavior Therapy*, 44, 432-442.

- Otto, M. W., Safren, S. A., and Pollack, M. H. (2004). Internal cue exposure and the treatment of substance use disorders: Lessons from the treatment of panic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1), 69-87.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yckman, R. M. (2012). *Theories of Personality (10th ed)*. (장문선, 광호완, 고재홍 역. 성격심리학). 서울: 박학사.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1-10.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 Vujanovic, A. A., Hart, A. S., Potter, C. M., Berenz, E. C., Niles, B. L., & Bernstein, A. (2013).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in relation to PTSD symptoms among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 235-243.
- Vujanovic, A. A., Marshall-Berenz, E. C., & Zvolensky, M. J. (2011). Posttraumatic stress and alcohol use motives: The incremental and mediating role of distress toleranc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5*, 130-14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Zvolensky, M. J., Berstein, A., & Vujanovic, A. A. (2011).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Kim, Hye Weon    Lee, Jee-Y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6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en higher scores on covert narcissism were associated with lower scores on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decrease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scores and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were found. Study has shown that higher scores on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cores on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Moreover, higher scores on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Second, (increase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 Covert narcissism had an effect on negative emotion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negative emotion, mediational effect*